



시로 읽는 성보순례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국보 제17호 부석사무량수전앞석등
통일신라시대 ▶2면

현대불교

변영하는 사람은 알아보기 쉽고,
파멸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변영하고,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멸망한다.
(속타카파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3월 7일) · 주간

제88호 2012년 3월 28일 수요일

선거가 보살행입니다

조계종, 불교인의 올바른 선거참여 리플렛 전국 사찰 배포

최근 조계종 지도자 연수회에서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설문 결과를 근거로 “불자들의 정치·사회적식이 낮다” “불교계는 사회적 대안 제시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금년 총선·대선의 주요 이슈로 상식·정의·공정·평화·복지 등을 꼽으며, “불교계에서 명분 있는 사회적 요구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연·혈연·지연·지역 이기주의 등 후보를 선택해야만 하는 기준이 넘치고 있다.

불자라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에서 바르게 실천하는 길일까.

조계종은 최근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불자들의 올바른 선거참여를 위한 ‘선거가 보살행입니다’라는 소책자(1만8000부)와 리플렛(22만부)을 제작해 전국 사찰 및 신도단체에 배포했다.

안내 소책자는 3부로 구성됐다. 제1부에는 ‘중생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선거참여’를 주제로 불교인의 선거참여 3대원칙, 올바른 후보를 뽑기 위한 불교인의 5대 기준, 불자들의 선거 참여 둘러 등 내용이 담겼다. 제2부에는 ‘선거시기 불자들의 지역공동체 참여를 위하여’를 주제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찰과 불교의 역할 등을 담았다. 제3부

후보선택 5대 기준

1. 전문분야 계승발전
2. 사회적 약자 배려
3. 청렴과 종교평화
4. 생명과 환경 존중
5. 사회적 갈등 통합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위해 필요한 자질과 성품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①전문분야 계승발전 ②사회적 약자배려 ③청렴과 종교 평화 ④생명과 환경 존중 ⑤사회적 갈등 통합 등 후보 선택 5대 기준도 제시했다.

또, 불교계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지역사회 발전에서 앞장서자는 취지에서 지역공동체 참여를 둘러했다.

조계종은 총선의 지역적 의미와

사람의 역할도 분석·수목했다.

지역문화발전을 지원해 불교문화를 보존하고 이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지역정치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민주주의의 선도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역할론도 제시했다. 특히, 지역 공동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약 개발과 제시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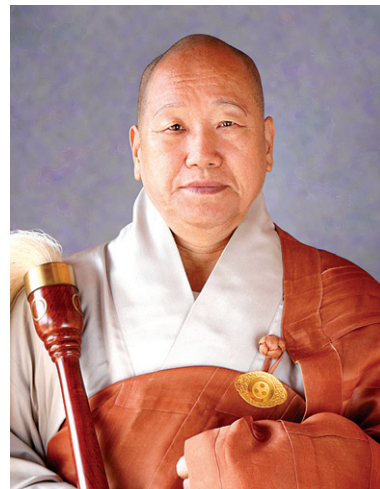
조계종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려면 인문학적 소양과 철학과 종교적 이념이 살아있어야 한다. 윤리·철학·종교가 살아 있는 사회 그러한 정신적 가치로 진정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많을 때 그 사회가 진정 행복한 사회이다. 그 가치를 장려하고 일깨우는 리더가 진정한 불교계 리더이다”라고 설명했다.

조계종은 “투표율이 낮으면 선거를 위한 국민 열세가 낭비되고, 대표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사찰과 불교단체를 비롯한 불자들이 나서 투표를 독려하자”고 말했다.

조계종은 투표율 제고를 위해 전국 사찰사 법문을 통해 신도들에게 투표 참여를 권장하고 투표 참여 캠페인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소책자와 리플렛은 22일 초하루 법회를 시작으로 총선 기간 동안 사찰의 각종 법회 및 행사시에 법문과 더불어 불자들에게 배포된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조계종 전국 사찰 및 기관에 배포된 종정예하 근영(왼쪽)과 교시

廣精持教
度進戒示
衆和清淨
生合淨

‘지계청정’ ‘정진화합’ ‘광도중생’

조계종 제13대 종정 진제 대종사 교시...28일 추대식

조계종 제13대 종정 진제법원 대종사가 3월 28일 오후 2시 서울 계사에서 열린 추대식을 앞두고 조계종에게 ‘지계청정(持戒淸淨)’, ‘정진화합(精進和合)’, ‘광도중생(廣度衆生)’의 새 교시를 내렸다. 진제 대종사의 종정 추대식에는 원로회의의장 종산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주요 소임 스님과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등 종단 중진스님,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등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 세계적 종교 간 대화 지도자인 람비 잭 벡포드 등 외빈 등 1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종정추대식서 생명평화 1000일 등불 점등

결사추진본부 1000일 장정...첫주자 강정마을 대책위장

한국불교1번지 조계사에 ‘꺼지지 않는 생명평화의 등불’이 켜진다.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범, 이하 결사추진본부)는 ‘민족화해·평화통일·한반도 생명평화 공동체 실현을 위한 1000일 정진결사’를 3월 28일 오후 3시 계사 일주문 옆 정진단과 조계사 대웅전에서 입제한다고 발표했다.

1000일 정진결사는 ▷생명평화 1000일 정진 ▷사부대중 아단법석 ▷시민초청 무차대회를 이뤄졌다. ‘1000일 정진결사’는 출제가 종무원, 시민단체, 사부대중, 시민대중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매일 24시간 끊이지 않고 2014년 12월 22일

까지 릴레이 기도 방식으로 이어지는 대장정이다.

입제는 제13대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 추대식에서 종정예하의 ‘1000일 정진’ 점등으로 시작된다. 첫 정진은 강정마을 고관일 대책위원장이 참여한다.

이어 통일운동가 백기완 선생, 외국인 헤니헨드라케(스위스), 김경우 쌍용차해고자대책위원장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이웃종교인 김진해 목사(기독교), 김정일 신부(가톨릭), 이성심 교무(원불교) 등도 참여한 다.

결사추진본부는 “농민, 청년, 다문화 가족 등 각 단체의 상징적 대

표자들이 각각 1시간씩 첫날 릴레이로 정진을 한다”고 말했다.

1000일 정진등은 조계사 대웅전과 정진단에 동시에 점등돼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자성과 쇄신 결사 실현을 위한 ‘꺼지지 않는 상징적 등불’이 될 전망이다.

아단법석은 5월 중 첫 법석 자리를 열어 불교 내부의 궁극증이나 사회적 의제 등을 대종적으로 드러내 토론하는 자리이다.

결사추진본부는 건전한 토론문화와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대종적 건

지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무차대회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부처님으로 모셔 공양을 대접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사본부장 도범 스님은 “1000일 정진, 아단법석, 무차대회를 통해 한국 불교 1번지인 조계사가 시대와 함께 호흡하면서 못 생명, 아픔을 공유하고 치유하는 생명평화의 도량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1000일 정진결사 참여방법 조계종 결사본부 홈페이지 내 ‘참가자 일정표’에 기재 또는 전화(02-2011-1928)나 이메일(1000day@buddhism.or.kr), 서면 등으로 신청해 일정을 조율하면 된다.



“나르는 축구공 만큼 우리 꿈도 키울게요” 재가불자 축구동호회 FC부타(회장 이동격)가 캄보디아 초등학교에 축구공품을 지원해 스포츠를 통한 자비행을 펼쳤다. FC부타는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이 설립·후원하고 있는 캄보디아 북쪽 국경오지마을 오다르민제이주 땀뽀디봉 마을, 땀뽀디봉 초등학교 축구부에 축구공품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축구부 전원 유니폼과 축구공 등을 전달했다. 조동섭 기자

“종교인에 과세해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에 논란

최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조사에서 국민 65%가 ‘종교인의 과세에 찬성한다’고 답한데 이어, 주무부처 장관이 종교인 과세 문제를 언급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19일 머니투데이에 출연해 “종교인 과세를 언제까지 미루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종교인 과세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빨리 이루고 다른 조치를 통해서라도 예외 없이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종교 활동에는 특별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경비 측면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 경비를 어떻게 인정할 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종교인에 대한 엄격한 과세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식적으로 검토를 하진 않았다”면서 “과세 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논의의 바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1면

지체 말고 시행하라

종자연, 성명서 발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종교인에게도 과세가 돼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빠

른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원장 박광서, 이하 종자연)은 3월 23일 ‘종교인 과세 제체하지 말고 시행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조세의 형평성을 실현함과 더불어 종교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 방법이다. 종교인은 종교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종자연은 “종교인이 국민의 의무는 하지 않고 종교인으로서의 특혜만을 주장한다면 종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자연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국민의 다수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주저 말고 현행 법제에 부합하는 일관된 조세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881호 CONTENTS

시방세계 템플스테이 러시아 관광박람회	5
중립대학을 가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12
중국 고관화 유적지답사	14
여성지도자 동국대 불교대학장 계환 스님	15
지혜의 보고 불서 대행 스님 법어집 러시아어역 출간	23

신상품 LED인등·전구
한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가장 사랑받았고 감동적이었던 열다섯 분 스님들의 법문을 가려 엮었습니다

왜 나의 마음을 찾아야 하는지
왜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지
왜 내 이웃을 살피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만큼 중요한지

열다섯 분 스님들이 들려주는 단순하고 명쾌한 결론

2011~2012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원산 스님의 14명 / 176쪽 / 11,000원

2009~2010 기억에 남는 명법문 상수 스님의 19명 / 208쪽 / 12,000원
2010~2011 사랑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고산 스님의 17명 / 152쪽 / 10,800원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